



 금융위원회	보 도 자 료				· 생산적 금융 · 신뢰받는 금융 · 포용적 금융
	보도	'18.3.22일(목) 10:00	배포	'18.3.22(목)	

책 임 자	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변 제 호 (02-2100-2610)	답 당 자	홍 상 준 사무관 (02-2100-2612)
	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 김 태 경 (02-3145-6770)		박형근 팀장 (02-3145-6773)
	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 김 동 궁 (02-3145-7550)		정용걸 팀장 (02-3145-7447) 전광준 팀장 (02-3145-7435)
	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지원부장 천 성 민 (02-794-3400)		정혜선 팀장 (051-794-3410)
	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사무국장 심 재 철 (02-2128-8192)		임태선 과장 (02-2128-8167)

제 목 :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동향 점검회의 결과

◆ '18.2.8일 최고금리가 27.9% → 24%로 인하된 후에도 현재까지 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은 큰 변동없이 유지*되고 있는 상황

* 저신용자(7~10등급) 가계신용대출 실행액 : ('18.1월중) 2.4조원 → ('18.2월중) 2.2조원

◆ 특히,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율인하(기준계약)* 추진 등에 따라 시장에서 24% 초과 대출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해소되는 모습

* 3.16일까지 금융권 자율인하 실적 집계치 추산: 103.4만명(1.77조원)

◆ 24%초과 대출 해소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상품인 '안전망 대출'의 지원요건을 개선*하여 3.26일부터 공급

* ① 상품 지원 대상 확대 : '3개월 내 대출 만기 임박' 기준을 완화

② 성실상환시 금리인하 혜택 확대 : 6개월간 최대 1%p → 최대 3%p 등

1. 회의 개요

- '18.3.22일 김용범 부위원장은 금감원, 서민금융진흥원, 자산관리공사, 서민금융 관계 업권별 협회가 참여한 “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동향 점검회의”를 개최함

< 회 의 개 요 >

- 일 시 : '18. 3. 22(목) 9:00 ~ 10:00
- 장 소 : 서울정부청사 16층 대회의실
- 내 용 : ❶ 최고금리 인하(27.9% → 24%) 이후 시장동향 점검 및 ❷ 취약 차주에 대한 최고금리 인하 효과의 조속한 확산 유도 방향
- 참석자 : 금융위 부위원장(주재), 금감원 부원장보,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, 자산관리공사 부사장, 여신·저축은행·대부업 협회 전무 등 15여명

□ 참석자들은 당초 우려와는 달리,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 위축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, 인하된 최고금리가 원만하게 시장에 적용되고 있다고 평가

□ 이에 대해 김용범 부위원장은 기존 계약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자율인하 조치*로 상당수의 고금리 차주가 신속하게 금리인하 혜택을 적용받게 된 점에 대해 감사를 포함

* (저축은행) 24%초과대출 성실상환자 대한 지원(1.26일),
(여전) 카드사 24%초과대출 일괄 인하(2.8일),
(대부업) 대형업체 중심 24%초과대출 성실상환자 대한 지원(2.25일)

□ 아울러 최고금리 인하가 취약차주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는 '포용적 금융'의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면서,

○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*을 위해 보다 힘써 줄 것을 당부

* ① 24%초과 차주에 대한 자율인하 추진 내용 안내 ②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
③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를 통한 차주 금리부담 완화 등

□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인하된 최고금리가 시장에서 신속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,

○ 최고금리 초과 대출자를 보다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상품 보완과 적극적 홍보·안내 등을 요청

○ 이에 따라, 참석자들은 우선 24%초과 대출자를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함

2. 최고금리 인하 전후 시장 동향

◆ 2.8일 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

□ '18.2월 중 제2금융권·대부업의 가계신용대출 공급은 8.9조원으로, 설연휴 등 감안시 '18.1월 중 공급 수준을 유지*

* 설연휴 등에 따른 1월 대비 2월 영업일(22일→18일) 감소 감안시 오히려 소폭 증가

○ 저신용자 이용비중도 최고금리 인하 前과 유사한 수준 유지

* 7~10등급자 이용액 비중(%): ('17.12월) 26.8% → ('18.1월) 24.1% → ('18.2월) 24.7%

< 가계신용대출 신규 공급규모 (억원) >

		'17.12월중		'18.1월중 (A)		'18.2월중 (B)		증감률 (B-A/A %)
저축 은행	월중 공급규모	4,580		6,061		4,964		△18.1%
	7~10등급자 (비중%)	945	20.6	1,212	20.0	898	18.1	△25.9%
여전사	월중 공급규모	75,134		90,271		79,588		△11.8%
	7~10등급자 (비중%)	19,347	25.7	20,535	22.7	18,738	23.5	△ 8.7%
대부업	월중 공급규모	4,785		5,245		4,613		△12.1%
	7~10등급자 (비중%)	2,332	48.7	2,737	52.2	2,392	51.9	△12.6%
계	월중 공급규모	84,499		101,578		89,164		△12.2%
	7~10등급자 (비중%)	22,624	26.8	24,484	24.1	22,028	24.7	△10.0%

* 영업일 현황 : ('17.12월) 20일, ('18.1월) 22일, ('18.2월) 18일

3. 24% 초과대출(기존 계약) 해소 동향

◆ 금융권의 적극적 자율인하·정책금융지원 등에 힘입어 최고금리 초과대출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해소되는 모습

가. 24% 초과 대출(기존 계약) 해소 추이('18.2말 기준)

□ '18.2월말까지 24% 초과 차주수는 '17년말 대비 30%* 가량 감소
(△113.8만명, 382.9만명 → 269.2만명)

* 통상 최고금리 초과 대출 해소에 2~3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시 빠른 추세

○ 이는 금융권에서 24% 초과 차주 중 103.4만명(1.77조원, ~3.16일)에 대해 적극적인 금리 자율인하 조치를 실시한 데 기인

< 24% 초과 신용대출 현황* (조원, 만명)>

		'17.12말	'18.2말	증감	증감률(%)
저축은행	대출잔액	4.9	4.8	△0.1	△2.3%
	차주수	70.7	66.4	△4.3	△6.1%
여전사 (카드 + 캐피탈)	대출잔액	3.5	2.0	△1.5	△41.4%
	차주수	130.7	34.3	△96.4	△73.7%
대부업	대출잔액	8.7	8.1	△0.6	△6.6%
	차주수	181.5	168.6	△12.9	△7.1%
계	대출잔액	17.2	15.1	△2.1	△12.5%
	차주수	382.9	269.2	△113.8	△29.7%

* (저축) 시장점유율 87%인 15개사, (여전) 시장 전체, (대부업체) 시장점유율 64% 20개사

나. 정책금융을 통한 24%초과 대출 해소 동향

- 24%초과 차주에 대해 상환능력 등에 따라 ①햇살론 대환, ②바꿔드림론, ③안전망 대출 中 적합한 대환 상품을 지원 중

- * ① (햇살론 대환) 20%이상 대출을 금리 **11.5%** 이내로 대환
 ② (바꿔드림론) 20%이상 대출을 금리 **6.5%~10.5%**로 대환
 ③ (안전망 대출) 24%이상 대출이 **3개월 내 만기임박시 12~24%**로 대환
 - 금리가 높은 대신 성실상환시 6개월마다 최대 1%P의 금리인하 혜택

-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햇살론·바꿔드림론을 우선 안내·지원하고, 이들 상품으로 지원이 어려울 경우 안전망 대출을 안내·지원 중

- 2.8~3.20일간 24%초과 차주 **914명(130억원)**이 정책금융 상품을 통해 중금리 대출로 대환

< 정책서민금융의 24%초과 대출자 전환 지원 실적 (명, 백만원) >

구 분	햇살론 대환	바꿔드림론	안전망 대출	금융권 연계*	합 계
지원자 수	316	578	1	19	914
지원금액	3,702	8,948	20	309	12,979
지원금리 평균	8.4%	8.9%	15%	16.4%	-

* 상담자 중 정책서민상품 지원요건에 미해당되어 금융권 대출상품을 연계한 경우

- 금융권의 자율적 금리인하 조치와 맞물리면서 당초 예상보다 대환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
 ○ 특히,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탈락 방지를 위해 도입된 안전망 대출에 대한 수요의 위축이 상대적으로 심화

4. 종합 평가 및 향후 추진 계획

-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위축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,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부담 경감 효과는 원만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
 - 다만, 시중금리 상승 등 향후 여건변화 가능성을 감안하여 모니터링을 지속하고, 시장 상황에 따라 가용한 정책수단 (정책서민금융상품, 점검·감독 등)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계획
 - ❶ 영업의 자율을 존중하는 한에서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의 자율 인하 동참을 적극 독려
 - ❷ 저신용자 대상 불건전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점검·감독
 - ❸ 정책금융상품의 수요변화를 감안한 안전망대출 적용대상 확대
 - (지원대상) ① 만기 임박기준을 '3개월'에서 '6개월'로 완화하고, ② 24%초과 대출을 1년이상 상환해온 차주는 임박기준 미적용
 - (상품운용) 상환능력 평가 기준을 신청 집단군의 특성 및 재원 여력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
 - (금리혜택) 비교적 높은 금리로 지원받게 되는 차주도 성실 상환에 따라 실질적 이자부담경감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금리 인하 혜택 확대(6개월마다 최대 1%p → 3%p)
- ※ 안전망 대출 조건 보완에 따른 상담절차 개편, 변경 내용 홍보 등을 거쳐 3.26일부터 시행*

* 3.26일 이전 기존 요건에 따라 신청하여 탈락한 경우, 재심사 안내 등 구제 추진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변인 pfsc@korea.kr	 넓게 들겠습니다 바르게 알려겠습니다
--	---	---	---	--

- '18.2.8일 인하된 최고금리(27.9% → 24%)가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각 협회 중심으로 자율인하* 추진 中

* 현행 법체계상 기존 계약에는 인하효과가 소급되지 않음 (法 부칙 제4조 등)

- ① (저축은행, 1.26일~) 79개 저축은행은 24%초과 대출을 성실히 상환*한 차주가 신청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24%로 대환

* 대출 약정만기의 1/2이상 연체없이 성실상환한 경우

- 최고금리 인하 시행 前인 '18.1.26일부터 만기 연장계약에 선제적으로 24% 금리 적용

- ② (카드사, 2.8일~) 7개 카드사는 '18.2.8일부터 기존 24%초과 대출을 24%로 일괄 인하

* 롯데, 삼성, 신한, 우리, 하나, 현대, KB국민 7개 카드사

- ③ (대부업, 2.25일~) 20개 대형 대부업자를 중심으로 성실상환 (5일이상 연체 無)한 차주 등이 신청시 24%로 인하

- 24% ~ 34.9% 대출은 3년 이상 성실상환시 적용
- 34.9% 초과 대출은 성실상환 차주 신청시 적용

* 34.9% 초과대출은 '14.4월 이전 대출로 3년이상 장기 성실상환자임

- 업권별 집계 결과 3.16일까지 3개 업권의 자율인하 대상 대출의 규모는 총 1.77조원, 103.4만건 수준

< 업권별 자율인하 실적 >

	인하 금액(억원)	차주수(만명)
저축은행	737	1.1
카드사	14,463	96.4
대부업	2,472	5.9
계	17,672	103.4